

10대 미혼모의 유아입양 관련요인들에 관한 연구*

Attitudinal Factors Related to Release for Adoption among
Teen-age Unwed Mothers

윤 미 현**

Yoon, Mi Hyun

이 재 연***

Lee, Jae Yeon

ABSTRACT

The attitudes toward release for adoption of 130 teen-age unwed Korean mothers were studied with the use of the Donnelly and Voydanoff(1991) scale of attitudes about release for adoption and expectations regarding parenthood. Data were analyzed by t-test. While there were no socio-demographic differences between the 10.7% of mothers who planned on keeping their babies and the 89.3% who planned on release for adoption, the group choosing release for adoption thought they didn't have the ability to rear their babies and they took a negative attitude toward pregnancy compared with the group choosing to keep their babies. The group opting for release for adoption supposed that child rearing will interfere with their education, and they have a negative attitude about child rearing in general.

* 2000년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강사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I. 서론

70년대 이후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의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역기능 현상의 하나로써 서구의 성 개방 풍조가 급격히 밀어닥치게 되었다. 또한 청소년의 이성교제 기회가 많아지고, 대중매체를 통한 성적 자극이 만연해짐에 따라 오늘날 미혼여성의 임신 및 10대 미혼모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는 70년대 이후부터 청소년의 임신 및 미혼모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우리 나라 미혼모 특성 변화를 살펴볼 때 80년대는 전체 미혼모 수가 증가하는 특성을 보인데 반해, 90년대에 와서는 미혼모의 연령이 급격히 낮아지는 현상과 더불어 10대 미혼모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한영주, 1998).

일반적으로 10대 미혼모가 끼치는 영향은 20대 미혼모에 비해 보다 심각하다. 더구나 그 영향은 미혼모 당사자를 비롯해서 10대 미혼모가 낳은 유아, 10대 미혼모의 부모, 10대 미혼부 뿐만 아니라, 그들과는 직접 상관이 없는 사회에까지 영향이 미치게 되며, 특히 사회는 그들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적, 복지적, 의료적, 법률적인 문제들을 나누어 부담을 져야만 한다(Wazak, 1990). 또한 10대 미혼모는 나이가 많은 미혼모 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즉 10대 미혼모는 학업 중단으로 미래에 비전문직에 고용될 가능성이 높고, 그중 18세 미만의 미혼모는 생물학적인 미성숙으로 인해 건강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임신합병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20세 이상의 미혼모들보다 크다(Roosa, 1996). 또 그로 인해 10대 미혼모들은 그들이 유아를 키우게 될 경우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심한 학대와 방임의 가능성까지

지니게 된다(Donnelly & Voydanoff, 1991). 한편 10대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은 사생아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는데, 특히 10대 미혼모의 부적절한 산전관리와 불충분한 영양섭취 등으로 그들에게서 태어난 아동은 저체중아, 조산아, 선천적 결함아가 되기 쉽고, 10대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자녀 역시 자라서 미혼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Levering, 1983).

이처럼 미혼모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과 미혼모 자신 및 아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볼 때, 10대 미혼모의 발생은 미리 예방해야 한다. 그러나 일단 아기를 출산한 10대 미혼모들의 경우에는 아기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출산한 10대 미혼모들이 유아를 키우지 못하게 될 때 선택하는 대안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입양'이다. 10대 임신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은 '입양'이 10대 미혼모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보는데(미국 국가입양협회, 1987; Resenick, 1984), 이런 전문가들은 10대가 유아를 기르는데서 오는 회생을 최소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입양을 찬성한다. 즉 아기를 입양시킨 10대 미혼모들은 교육과 직업훈련을 계속 받을 수 있고,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기 위해 여러 해 동안 자신의 발달에 방해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Watson(1986)에 의하면 어떤 10대 미혼모들은 아기포기로 인한 상실감, 비통감, 후회로 자신의 권리를 약화시킬 수도 있고, 10대 미혼모의 이후의 성 관계, 출산 행동 뿐 아니라 심리적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Deykin, Campbell & Patricia, 1984; Watson, 1986), 이들에게 입양 이후에 더 많은 사회적 중재가 요구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10대 미혼모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은 유아에게도 유리하다고 본다. 대부분의 입양된 유아는 양쪽부모가 다 있는 가족체계에 놓이게 되고 건강한 양육기회,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청소년부모에게 양육되는 것보다 더 나은 접근을 할 수 있다(Donnelly & Voydanoff, 1991).

한편 Donnelly와 Voydanoff(1991)는 10대 미혼모들을 상대로 그들이 입양을 결정하게 만드는 결정요인들에 대해 연구했는데, 그 결과 유아를 입양시키기로 결정한 10대 미혼모들은 유아를 키우겠다고 결정한 양육희망 집단에 비해 백인이고, 교육수준이 높고, 10대 미혼모들을 위한 국가보조금을 받지 않고, 학교를 계속 다니며, 높은 사회경제적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형제 수, 고용상태, 임신횟수, 종교에 대한 중요성에서는 두 집단간 유의 있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입양선택집단은 보다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결혼나이가 높았고, 보다 높은 교육적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유아를 포기하겠다고 결정한 입양선택집단은 아기 양육을 희망하는 집단 보다 입양에 대해서 보다 유의있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밖에 유아를 입양시키기로 결정한 포기자들은 유아를 떠맡는 것을 나중에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더 컸고, 유아를 사랑하고 유아가 필요로 하는 엄마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유의 있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입양선택집단은 양육선택집단에 비해 부모역할에 대한 기대에서 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Kallen, Griffore, Popovich와 Powell (1990)의 10대 미혼모들의 유아입양태도 연구에서도 입양선택집단은 양육희망집단에 비해

아기가 입양 후 입양가정 속에서 어떻게 융화될 수 있는가 등의 유아복지에 대해서는 적은 관심밖에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양육희망자들은 조부모(특히 10대 미혼모의 엄마) 보다도 입양된 아동이 입양되지 않은 아동보다 입양된 이후 다르게 행동할 가능성에 대해 덜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입양된 아동이 입양해간 가족과 융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부모보다도 더 유의 있는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Kalmuss, Namerow와 Bauer(1992)의 10대 미혼모 입양태도의 연구에 의하면, 입양선택자들은 유아를 양육하는 집단 보다 그들의 입양결정에 대해 더 후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Kalmuss(1992) 등의 연구에서도 입양 선택자들이 양육 선택자들 보다 교육적 포부가 높았으며, 출산 후 6개월 후에 학교에 재등록할 가능성이 유의 있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 선택자들(10%)은 이후에 결혼 가능성이 입양 선택자들(3%) 보다 3배 높게 나타났다지만 숫자상으로는 적은 숫자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 Mclaughlin과 Micklin(1983)의 연구에서는 유아를 포기하는 엄마가 자존감, 생활에 대한 만족, 개인적 유능감에서 양육희망집단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아기를 키우겠다는 10대 청소년 엄마들 보다 입양을 선택한 청소년 엄마들이 임신해결책에 대한 만족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위의 연구들과는 대조를 보인다.

한편 우리 나라 미혼모들의 경우 1995년 서대문구청 조사에서 86%가 입양을 선택하고 4%만이 직접 아기를 키우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6년에는 미혼모의 84.1%

가 입양을, 6.1%는 양육을 선택했고(서울시 부녀복지연합회, 1996), 1999년에는 10대 미혼모 중 90%가 입양을 선택하고 10%가 양육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애란원, 1999), 2000년에도 89.3%가 입양을 선택하고, 10.7%가 양육을 선택하고 있어(윤미현, 2000) 꾸준히 키우고 자하는 미혼모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런 결과는 애란원의 내부자료에 의한 10대 미혼모조사에서도 양육희망자가 96년 0.5%, 97년 2%, 99년 10%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과 일치하는 결과다. 또한 이런 양육희망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은 미국의 추세를 따라가는 양상으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즉 10대 미혼모들은 자신의 힘으로 유아를 키울 능력이 부족하므로 입양을 권유해야만 하고, 만일 키우고자 하는 10대 미혼모가 있을 경우 이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양육비보조는 물론이고, 탁아 서비스, 직업알선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양부모는 입양아와의 적응을 위해 많이 연구되고 있지만(김경원, 1998) 친부모인 미혼모와 입양과의 관계 등 이들의 유아입양에 따른 사회, 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Donnelly와 Voydanoff(1991)는 10대 미혼모의 입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색 및 입양에 대한 10대 미혼모의 긍정적 태도, 부모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 등을 이들이 입양을 결정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들은 10대 미혼모가 미래에 성취하고 싶은 교육수준을 묻는 교육적인 기대, 가족이나 친척 중에 입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친척관계요인, 성관계시 미혼부와의 감정일치도, 어릴 때 성학대 경험 및 성폭행 경험유무 등이 입양결정에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10대 미혼모들을 입양선택집단과 양육선택집단으로 나누고, 두 집단간의 사회인구학적 차이와 유아 입양태도 및 부모역할 기대에 대한 차이, 교육적 기대, 친척관계, 성학대 경험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입양을 선택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회, 심리적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10대 미혼모의 유아 입양연구는 드문 일인데, 이는 유아입양연구의 측면에서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런 연구의 결과는 10대 미혼모들의 입양 결정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이들을 구체적으로 돕는데 효과적이고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10대 미혼모 중 입양선택집단과 양육선택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 2) 10대 미혼모 중 입양선택집단과 양육선택집단간에 유아입양태도와 부모역할에 대한 기대에 차이가 있는가?
- 3) 10대 미혼모의 교육적인 기대, 친척관계, 성관계시 10대 미혼부와의 감정일치도, 성학대 경험은 10대 미혼모 중 입양선택집단과 양육선택집단간에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보건복지부 여성복지 시설(1999)에 수록된 8개 미혼모시설 중 질문지응답을 수락한 6개 미혼모 시설(구세군여자관, 마리아모성원, 대구혜림원, 인애복지원, 에스더의 집, 마리아의 집)에 수용되어 있는 미혼모 170명과 아동복지시설 일람표(1999)에 나타나 있는 아동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4대 입양기관(한국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에 상담을 의뢰하고자 하는 미혼모 72명으로 총 242명이다. 242명중 10대는 130명(53.7%), 20대이상은 112명(46.3%)이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10대 미혼모 130명만을 최종분석에 포함시켰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10대 미혼모의 출산 후 아기에 대한 계획에서 입양을 시키겠다고 응답한 응답자 100명(89.3%)을 입양선택집단으로 보았다. 또한 아기를 자기 혼자 혹은 미혼부와 함께 키우겠다고 응답한 응답자 12명(10.7%)을 양육선택집단으로 보았고, 모르겠다 16명과 무응답 2명은 통계에서 제외시켰다. 이런 비율은 두 집단간 크기의 불균형을 보이는 것이지만, 현재 10대 미혼모의 실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즉 모르겠다를 통계에서 제외시킨 것은 10대 미혼모의 유아 입양, 양육실태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연구에 참여한 미혼모시설의 원장 및 실무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제외시켰다.

2. 측정도구

1) 유아입양태도에 대한 척도

유아 입양에 대한 척도는 Donnelly와 Voydanoff(1991)가 10대 미혼모 입양태도 연구에서 사용했던 유아입양태도 척도를 본 연구자가 번안해서 사용하였다. 유아입양태도 척도가 10대 미혼모에게 사용하기에 적합한 문장으로 고쳐졌는지 혹은 내용 및 표현이 적절한지,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평가하기 어렵지는 않은가 등의 문항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학 박사 및 전공교수 10인으로부터 안면 타당화 과정을 거쳤으며, Donnelly와 Voydanoff(1991)가 사용했을 당시 신뢰도 지수는 Cronbach $\alpha = .77$ 이었다. 유아입양에 대한 척도는 총 6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6문항 모두를 사용하였으며, 4점 Likert척도로서 매우 그렇다(4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로 되어 있다. 6항목을 합산해서 유아입양태도 점수로 보았으며, 6항목 중 4항목은 부정적인 태도이므로 역산했고, 최하 6점에서 최고 24점까지의 점수범위 중 높은 점수일수록 유아입양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1$ 로 나타났다.

2) 부모 역할에 대한 기대척도

Donnelly와 Voydanoff(1991)가 10대 미혼모들에게 사용한 '부모역할에 대한 기대' 척도를 본 연구자가 번안해 사용하였다. 부모역할에 대한 기대 척도가 10대 미혼모에게 사용하기에 적합한 문장으로 고쳐졌는지 혹은 내용 및 표현이 적절한지,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평가하기 어렵지는 않은가 등의 문항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학 박사 및 전공교수 10인으로부터 안면 타당화 과정을 거쳤으며, Donnelly와 Voydanoff(1991)가 연구에 사용할 당시 신뢰도 지수는 '내가 만일 아기를 직접 기른다면, 아기는 자라면서 엄마로서의 나를 꼭 필요로 할 것이다'와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돌볼 능력이 있다'의 두 문항을 요인분석을 통해 포함시키고 있는데, 두 문항을 합한 신뢰도 점수가 Cronbach $\alpha = .75$ 였다 또한 '임신하고 있었던 10개월 동안 나는 내가 여성으로서 임신전 보다 마음에 들었다'와 '아기를 임신하므로써 나는 내가 더 어른스럽게 느껴졌다'를 두 문항을 요인분석을 통해 포함시키고 있는데, 두 문항을 합했을 때 신뢰도가 Cronbach $\alpha = .69$ 였다. 부모역할에 대한 기대척도는 10대 미혼모의 부모역할 태도가 아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묻는 항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아 입양태도'와는 비교되는 입장으로 부모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10대 미혼모일수록 유아입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3점 Likert로 된 척도로서 총13항목을 모두 본 연구에서 사용했으며, 13항목 중 5항목은 부정적인 항목이므로 역산했다. 13항목을 모두 합산하여 부모역할에 대한 기대점수로 보는데, 점수범위는 최하 13점에서 최고 39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녔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의 전체 부모역할에 대한 기대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6$ 으로 나타났다. 13개 문항에 대한 합산점수 이외에 부모역할에 대한 기대척도의 13문항을 단일항목으로 본 다음 다시 10대 미혼모들의 심리상태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분리해서 분석에 사용하였는데, Donnelly와 Voydanoff(1991)가 연구에 사용할 당시 요인분석을 통해 제시

한 항목은 묶어서 보고, 나머지는 단일항목으로 보고 그 차이를 분석했다. 즉 '아기는 자라면서 엄마로서 나를 필요로 할 것이다'와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돌볼 능력이 있다'를 묶어서 부모역할능력에 대한 정서로 보았는데 본 연구의 두 항목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57$ 였고, '나는 여성으로서 임신전 보다 마음에 든다'와 '임신을 하므로써 내가 더 어른스럽게 느껴진다'를 묶어 임신에 대한 정서로 보았으며, 본 연구의 두항목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67$ 였다.

3) 사회인구학적특색, 교육적 기대, 친척관계, 성관계시 감정일치도, 성학대 경험
10대 미혼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색, 교육적 기대, 친척관계, 성관계시 10대 미혼부와의 감정일치도, 성학대 경험 및 성폭행에 의한 임신인지 여부는 모두 단일 항목으로 측정되었다. 즉 예를들어 교육적 기대에서 10대 미혼모의 졸업하고 싶은 최종학력은 중졸 1점, 고졸 2점, 대졸 3점, 대학원졸업 4점으로 계산하였으며, 25살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아주 많이 생각한다 4점, 약간 생각한다 3점, 매우 적게 생각한다 2점,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1점으로 놓고 계산하였다. 또한 엄마가 되고 싶은 가장 이상적인 나이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결혼연령 등은 전체 응답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해 통계처리 하였으며, 특히 성학대 경험유무와 현재임신이 성폭행에 의한 것인지 유무의 경우는 그렇다 2점, 아니다 1점으로 놓고 통계 처리하였다.

3. 용어의 정의

1) 유아입양태도

유아입양태도란 청소년 미혼모들이 입양이

란 제도에 대해 갖고 있는 관심이나 기대, 태도를 말한다(Donnelly & Voydanoff, 1991). 미혼모 자녀의 입양은 92.8%가 1세 미만에 입양되며, 나머지 7.3%도 4세 미만에 모두 입양되기 때문에(홀트 아동복지회, 1996), 0-18세를 지칭하는 아동(성영혜, 1997)입양이란 용어보다 0-8세를 지칭하는 유아(임재택, 1996)입양이란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보고 본 연구에서는 유아입양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 부모역할에 대한 기대

10대 미혼모의 부모 역할에 대한 기대는 아기에게 갖고 있는 10대 미혼모의 관심, 기대를 말하며, 혹은 부모역할에 대한 기대(Donnelly & Voydanoff, 1991)를 말한다. 10대 미혼모가 갖고 있는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기대는 결국 출산이후 미혼모 자녀의 신체적, 정신·심리적, 사회적 복지 및 안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성영혜, 1997). 일반적으로 부모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대할 때 10대 미혼모들은 입양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이 있다.

3) 교육적인 기대

10대 미혼모의 미래에 졸업하고 싶은 최종 학력을 교육적인 기대로 보며, 본 연구에서는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업 등 4단계로 나누고 있다. 이밖에 본 연구에서는 엄마로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나이와 이상적인 결혼 연령, 25세 때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생각 등 미래에 대한 기대를 교육적인 기대 영역속에 넓

게 포함시키고 있다.

4) 친척관계

가족이나 친척 중에 입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유무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이외에 친구 중 입양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말하는 친구관계도 친척관계요인 영역에 넓게 포함시키고 있다.

5) 성관계시 감정일치도, 성학대 및 성폭행 경험

성관계시 감정 일치도는 임신하기 바로 전, 10대 미혼모가 10대 미혼부와와의 성교시 두 사람의 감정교류의 일치정도를 말하는 것이며, 성학대는 성폭력을 포함하는 용어로서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의 법적 개념에 포함되는 강간, 강제추행, 음란물제조 및 판매, 음란행위, 아내구타, 아동학대, 성기노출뿐 아니라, 부녀간 형제간의 근친상간에 의한 장기적인 성적 학대 등도 포함한다(문애희, 1997).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10대 미혼모들의 유아입양과 유아양육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밝히기 위해서 10대 미혼모들을 일단 유아 입양선택집단과 유아 양육선택집단으로 나눈 후 두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PSS/PC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변인에 대한 t-test를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10대 미혼모 중 입양선택집단과 양육선택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10대 미혼모들의 아기에 대한 계획에서 '모르겠다'와 '무응답' 한 18명을 제외하고, 112명(100%)의 응답자 중 입양 선택자 100명(89.3%)과 양육 선택자 12명(10.7%)만을 각각 입양선택집단과 양육선택집단으로 보았다.

한편 입양선택집단과 양육선택집단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10대 미혼모의 입양선택집단과 양육선택집단간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에는 유의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10대 미혼모의 연령, 학력, 성적, 수입, 종교의 중요성, 형제 수, 결혼상태, 임신횟수는 이들이 임신해결 방법으로 입양을 선택하거나 양육을 선택하는데 유의 있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10대 미혼모 중 입양선택집단과 양육선택집단의 유아입양태도와 부모역할 기대의 차이

10대 미혼모 중 입양선택집단과 양육선택집단의 유아입양태도와 부모역할 기대의 차이는 <표 1>과 같다. 유아입양태도와 부모역할에 대한 기대는 모두 두 집단간에 유의 있는 차이가 있었다. 즉 유아입양선택집단은 유아입양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낸 반면에 부모역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유아양육선택집단은 부모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에 유아입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부모역할에 대한 기대를 보다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Donnelly와 Voydanoff

(1991)가 연구에 사용할 당시 요인분석을 통해 제시한 항목은 묶어보고, 나머지는 단일항목으로 보고 그 차이를 분석했을 때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아기는 자라면서 엄마로서 나를 필요로 할 것이다'와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돌볼 능력이 있다'를 묶어서 부모역할 능력에 대한 정서(두항목 신뢰도 Cronbach $\alpha = .57$)로 보았으며, '나는 여성으로서 임신전 보다 마음에 든다'와 '임신을 하므로써 내가 더 어른스럽게 느껴진다'를 묶어 임신에 대한 정서(두항목 신뢰도 Cronbach $\alpha = .67$)로 보았다.

그 결과 유아 입양선택집단은 유아 양육선택집단 보다 유의 있게 자신의 부모역할에 대해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임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정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역할에 대한 기대의 단일항목으로 본 나머지 항목의 경우에, 유아를 기르는 것이 학교 졸업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은 유의 있게 적은 반면에, 자신이 유아를 기르는 것에 대해서는 유의 있게 부정적인 경향이 있었다. 이밖에 입양선택집단은 양육선택집단에 비해 유아를 입양시키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유아를 기르는데 따른 경제적인 책임도 지고 싶지 않고, 유아를 기르는 것이 앞으로 자신의 결혼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유의 있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10대 미혼모 중 입양선택집단과 양육선택집단의 유아 입양태도와 부모역할에 대한 기대의 차이

변 인	입양집단(N=100)		양육집단(N=12)		t 값
	M	(SD)	M	(SD)	
유아 입양 태도	17.24	(2.62)	15.08	(3.50)	2.59*
부모역할에 대한 기대(전체)	23.69	(4.18)	28.91	(4.27)	4.08***
부모역할에 대한 기대의 단일항목					
부모역할능력에 대한 정서(아기는 자라면서 엄마로서 나를 필요로 할 것이다+나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돌볼 능력이 있다)	1.71	(.44)	2.20	(.62)	3.51**
임신에 대한 정서(나는 여성으로서 임신전보다 마음에 든다 + 임신을 하므로써 내가 더 어른스럽게 느껴진다)	1.49	(.46)	1.91	(.59)	2.91**
만일 내가 아기를 기른다면 아기는 나의 자유를 빼앗을 것이다.	2.51	(.59)	2.67	(.49)	.88
만일 아기를 기른다면 아기는 나를 구속하고, 아기를 기른 것을 후회할 것이다.	2.56	(.59)	2.83	(.39)	1.56
만일 아기를 기른다면 아기는 나의 사회활동을 방해할 것이다.	2.43	(.59)	2.42	(.51)	.075
만일 아기를 기른다면 나는 학교 졸업이 어려울 것이다.	2.21	(.66)	2.67	(.49)	2.33*
만일 아기를 기른다면 나는 직업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2.21	(.59)	2.25	(.45)	.23
나는 아기를 기르는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1.31	(.58)	2.00	(.85)	3.68***
아기를 기르지 않고 입양시킨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행동이다.	1.43	(.54)	2.08	(.67)	3.88***
나는 아기를 기르는데 따른 경제적인 책임을 질 것이다.	1.24	(.47)	1.92	(.67)	4.46***
나는 아기를 기르는 것이 앞으로 결혼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1.38	(.53)	1.83	(.72)	2.70**

* p<.05 ** p<.01 *** p<.001

3) 10대 미혼모 중 입양선택집단과 양육선택집단간의 교육적 기대, 친척 관계, 성관계시 감정일치도, 성폭행 및 성학대 경험의 차이

① 10대 미혼모 중 입양선택집단과 양육선택집단간의 교육적 기대에 대한 차이

10대 미혼모 중 입양선택집단과 양육선택집단간의 교육적 기대에 대한 차이는 <표 2>와

같다. 유아 입양선택집단은 유아 양육선택집단보다 졸업하고 싶은 최종학력이 의의 있게 높고, 엄마가 되기에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나이가 의의 있게 높으며,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결혼연령도 의의 있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5세 때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생각은 두 집단간에 의의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 10대 미혼모 중 입양선택집단과 양육선택집단간의 교육적 기대에 대한 차이

변 인	입양집단(N=100)		양육집단(N=12)		t 값
	M	(SD)	M	(SD)	
졸업하고 싶은 최종학력	2.48	(.56)	2.17	(.39)	2.53*
엄마로서 이상적인 나이	26.28	(2.17)	24.33	(1.50)	3.02**
이상적인 결혼 연령	25.14	(1.83)	23.00	(1.60)	3.88***
25세 때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생각	2.36	(.76)	2.75	(.75)	1.68

*p<.05 **p<.01 ***p<.001

② 입양선택집단과 양육선택집단간 친척관계의 차이

한편 입양선택집단과 양육선택집단간에는 어머니의 유아에 대한 조치, 가족 중 입양자가 있는지 유무, 친구 중에 입양자가 있는지 유무는 모두 의의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입양선택에 있어서 어머니의 유아에 대한 조치, 가족 중에 입양자가 있는지 유무, 친구 중에 입양자가 있는지 유무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③ 입양선택집단과 양육선택집단간 성관계시 감정일치도, 성폭행 및 성학대 경험의 차이

두 집단간에 성관계시 감정일치도, 성폭행 및 성학대 경험의 차이는 <표 3>과 같다. 입양선택집단과 양육선택집단간에 성폭행에 의한 임신유무는 의의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즉 입양선택집단은 성폭행에 의해 임신한 경우가 의의 있게 높으며, 또한 성폭행에 의한 임신일수록 10대 미혼모들은 입양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관계시 10대 미혼부와의 감정 일치도와 성학대 경험유무는 두 집단간에 의의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10대 미혼모 중 입양선택집단과 양육선택집단의 성관계시 감정일치도, 성학대 및 성폭행경험의 차이

변 인	입양집단(N=100)		양육집단(N=12)		t 값
	M	(SD)	M	(SD)	
성관계시 10대 미혼부와의 감정 일치도	2.23	(1.07)	2.58	(1.16)	1.07
성학대 경험 유무	.27	(.45)	.25	(.45)	1.47
현재 임신이 성폭행에 의한 것인지 유무	9.00	(.29)	.00	(.00)	3.13**

**p<.01

IV. 논의 및 결론

1. 논의

1) 10대 미혼모 중 입양선택집단과 양육선택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10대 미혼모들을 아기에 대한 계획에서 모르겠다, 기타, 무응답자를 제외하고 입양선택자 100명(89.3%)과 양육선택자 12명(10.7%)을 각각 입양선택집단과 양육선택집단으로 나누어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10대 미혼모의 연령, 학력, 성적, 수입, 종교의 중요성, 형제 수, 결혼상태, 임신횟수 모두 두 집단간에 유의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결과 중 10대 미혼모 성적, 종교의 중요성, 형제 수, 결혼상태, 임신횟수는 Donnelly와 Voydanoff(1991)와 일치된 결과지만, 이들의 연령에 대해서는 Bachrach(1986)와 학력, 수입에 대해서는 Donnelly와 Voydanoff(1991), Leynes(1980)와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즉 본 연구와는 다르게 이들 연구에서는 입양선택집단이 양육선택집단보다 나이가 더 많고, 학력과 수입이 유의 있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반된 결과를 보인 이유는 임신해결방법에서 미국의 경우 입양선택집단이 14%, 양육선택집단이 86%인데(Donnelly & Voydanoff, 1991) 비해 본 연구의 경우는 입양선택집단 89.3%, 양육선택집단 10.7%로 서로 반대되는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 양육선택집단 수가 너무 적어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두 그룹간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우리 나라의 경우 특히 10대 미혼모의 혼전 임신에 대해서는 사회인구학적인 특성과 상관

없이 모두가 남의 눈을 의식하는 사회분위기 때문에 입양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2) 10대 미혼모 중 입양선택집단과 양육선택집단의 유아입양태도와 부모역할 기대의 차이

입양선택집단과 양육선택집단간의 유아입양태도와 부모역할기대에 관해서는 두 집단간의 유의 있는 차이가 있었다. 즉 유아입양선택집단은 유아입양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부모역할 기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유아양육선택집단의 경우에는 부모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유아입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부모역할에 대한 기대를 보다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Donnelly와 Voydanoff(1991)가 연구에 사용할 당시 요인분석을 통해 제시한 항목은 묶어보고, 나머지는 단일항목으로 보고 두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입양선택집단은 양육선택집단 보다 자신이 부모역할에 대해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임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정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를 기르는 것이 학교졸업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적었지만, 자신이 유아를 기르는 것에 대해서는 유의 있게 부정적인 경향이 있었다. 또한 입양선택집단은 양육선택집단에 비해 유아를 입양시키는 것을 이기적인 행동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유아에 대한 경제적 책임도 지고 싶지 않고, 유아를 기르는 것이 앞으로 자신의 결혼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양선택집단은 아기의 장래보다는 자신의 미래를 더 생각한다고 볼 수 있는 결과다.

유아입양선택집단은 유아입양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부모역할기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보인 결과는 Donnelly와 Voydanoff(1991), Kallen, Griffiore, Popovich와 Powell(1990)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다.

부모역할에 대한 기대 항목을 묶거나 단일항목으로 본 후의 연구 결과 중 입양선택집단은 양육선택집단에 비해 자신의 부모 역할에 대해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임신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를 지니고 있고, 유아를 입양시키는 것이 이기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은 Donnelly와 Voydanoff(1991)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다. 또한 유아를 기르는 것이 학교졸업에 방해가 될 것이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경제적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것, 자신의 결혼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Kalmuss, Namerow와 Bauer(1992)와 일치된 결과지만 Donnelly와 Voydanoff(1991)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며, 자신이 유아를 기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을 보인 것은 Kalmuss, Namerow와 Bauer(1992)와 상반된 결과다.

이런 결과에 대한 차이는 일부 인종적 문화적인 차이일 수도 있지만 입양선택집단이 양육선택집단에 비해 자신이 유아를 기르는 것에 대해 더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은 Kalmuss, Namerow와 Bauer(1992)의 연구의 경우 한국보다 미국의 입양선택자가 적기 때문에 표본집단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본 연구에서 보다는 적은 수의 기관에서 수집된 자료로부터 얻은 결과로서 연구의 외적타당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입양선택집단이 양육선택집단에 비해 유

아를 기르는데 따른 경제적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경향이 크게 나타난 것은 윤미현(2000)의 10대 미혼모 연구의 10대 미혼모 아기의 장래 계획에서 이들이 유아를 입양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기를 책임질 수 없어서로 나타난 것과도 일치된 결과다. 그러나 Donnelly와 Voydanoff(1991)의 연구 결과에서 미국의 10대 미혼모들은 오히려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AFDC(피부양아동을 가진 가정을 위한 국가보조금)을 받지 않는 요인이 입양선택에 가장 기여한 변인으로 나타났고 또한 우리와는 상반되게 미국 10대 미혼모들은 양육선택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AFDC를 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현재 미국에서 양육하려는 10대 미혼모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여러 연구자들(Apfel & Seitz, 1991)은 보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결과의 차이는 단순히 두 나라의 사회 제도적인 차이로도 볼 수 있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도 국가에서 10대 미혼모들에게 유아양육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유아를 입양시키기 보다 양육하려는 미혼모수가 증가할 것임을 나타내 주는 결과로도 볼 수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20세 이상 미혼모들의 경우는 입양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가가 일정액의 양육지원금을 보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10대 미혼모의 경우 미국처럼 양육지원금 지급이 오히려 10대 미혼모 증가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본 연구의 여러 결과를 통해 볼 때 10대 미혼모들에게는 그들의 성장과 교육 및 장래를 위해 유아의 입양을 장려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결과로도 볼 수 있는데, 10대 미혼모의 경우 만약 양육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단순히 양육지원금 지급에 그칠 것이 아니

라 이들이 교육을 중단하지 않고 유아를 키울 수 있도록 학교교육, 직업교육, 탁아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10대 미혼모의 입양선택집단과 양육선택집단간의 교육적 기대, 친척관계, 성관계시 감정일치도, 성폭행 및 성학대 경험의 차이

입양선택집단과 양육선택집단간의 교육적 기대, 친척관계, 성관계시 감정일치도, 성폭행 및 성학대 경험의 차이는 입양선택집단이 양육선택집단 보다 졸업하고 싶은 최종학력이 높고, 엄마로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나이와 이상적인 결혼연령이 의의 있게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임신이 성폭행에 의한 임신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친척관계, 성관계시 감정 일치도는 두 집단간에 의의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입양선택집단이 졸업하고 싶은 최종학력이 높은 것, 이상적인 엄마로서의 나이와 결혼연령이 높은 것은 Donnelly와 Voydanoff(1991), Kalmuss, Namerow와 Bauer(1992)와 일치된 결과이고, 성폭행에 의한 임신가능성이 높은 것은 Donnelly와 Voydanoff(1991)와 일치된 결과다. 그러나 친척 관계 중 10대 미혼모 어머니의 아기에 대한 조치에서 입양집단과 양육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Kallen, Griffore, Popovich와 Powell(1990), Leynes(1980), Rosen, Bensen과 Stack(1982)의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다.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것은 미국 10대 미혼모 어머니의 아기에 대한 조치는 단일 항목이 아닌 다수항목으로 된 측정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이며, 특히 미국의 경우 백인 10대 미혼모의 어머니들이 흑인 10대 미혼모의 어머니들보다 입양을 권유하는 경향이 컸

는데, 이것은 백인 10대 미혼모의 어머니들이 흑인 10대 미혼모의 어머니들에 비해 자식의 문제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경우 두 집단 모두 유사하게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유아를 입양시키거나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자식의 문제에 대한 어머니의 영향력이 큰 사회 문화적인 특성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2. 결론

10대 미혼모의 아기에 대한 계획의 응답결과를 기초로, 입양선택집단과 양육선택집단으로 나누어 두 집단의 특성차이를 분석한 결과 두 집단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색에서는 의의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유아입양태도와 부모역할에 대한 기대에서는 두 집단간 의의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부모역할 기대를 항목을 묶거나 단일 항목으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 유아 입양선택집단은 양육선택집단보다 자신의 부모역할에 대해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임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정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를 기르는 것이 학교졸업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은 의의 있게 적은 반면, 자신이 유아를 기르는 것에 대해서는 의의 있게 부정적인 경향이 있었다. 이밖에 입양선택집단은 양육선택집단에 비해 유아를 입양시키는 것에 대해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지 않으며, 유아를 기르는데 따른 경제적 책임도 지고 싶지 않고, 유아를 기르는 것이 앞으로 자신의 결혼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의의 있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양선택집단은 양육선택집단 보다 졸업하고 싶은 최종학력이 의의 있게

높으며, 이상적인 엄마의 나이, 이상적인 결혼 연령도 의의 있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현재 임신이 성폭행에 의한 임신일 때 10대 미혼모들은 입양시키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유아의 미래보다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는 10대 미혼모일수록 입양을 더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10대 미혼모의 장래계획에서도 이들이 입양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이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 볼 때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입양선택집단 및 양육선택집단의 표본수의 비율은 우리 나라 10대 미혼모 유아의 입양비율 및 양육비율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10대 미혼모의 표본 수를 강화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주어진 일정기간동안 수집할 수밖에 없었던 관계로 입양선택집단에 비해 양육선택집단의 표본수가 적어 집단의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이런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에 소재한 미혼모기관에 수용된 미혼모와 우리 나라 4대 전문아동상담기관에 상담을 의뢰한 미혼모를 대상으로 표본을 수집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외적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그 동안 20대를 포함하는 전체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주로 입양에 대한 실태 등 사회학적인 접근이 주류를 이룬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주로 10대 미혼모만을 대상으로 결과를 분석했고 특히 10대 미혼모들이 유아를 입양시키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중요한 사회, 심리학적인 요인들을 함께 파악해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10대 미혼모들의 유아 문제해결에 따른 심리적 갈등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미혼모시설과 아동 전문상담기관에서 이들의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보다 효과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토대로 10대 미혼모의 임신관련요인 및 입양관련요인들에 대해 좀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자 하는 추후연구와 복지행정 및 정책을 위해 몇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첫째, 유아를 양육하고자 하는 10대 미혼모가 입양시키고자 하는 10대 미혼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적기 때문에, 좀더 오랜 시간의 표집과정을 거쳐 표본 수를 늘려야 하며, 이를 통해 양육선택집단의 대표성과 연구결과의 일반화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이들에 대해 좀더 심층적인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측정 방법을 질문지조사법에 국한시키지 말고, 일대일 개별 상담, 관찰 등 보다 다양한 측정방법을 사용해볼 필요가 있다.

2) 복지행정 및 정책을 위한 제언

첫째, 20대 미혼모의 경우 미혼모와 유아를 위한 복지기금을 제공하는 등 정책적인 배려를 통해 유아를 자신이 키우려는 미혼모를 증가시키고, 입양을 감소시켜야만 한다. 그러나 10대 미혼모의 경우 유아를 직접 키우는 일은 이들의 발달, 교육 등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기 때문에 복지기금을 제공할 때 신중한 논의와 고려가 필요하며, 이들에게는 입양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만 한다.

둘째, 임신, 출산한 10대 미혼모에 대해서 반복임신을 막고, 출산이후 적응을 돕기 위해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 및 집단 심리치료

등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중재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하며, 직업교육, 부모교육 등을 포함하는 좀더 포괄적인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 김경원(1998). 국내 입양실태와 관련된 입양사회교육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문예회(1997). 청소년 성폭력실태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보건복지부(1999). 아동보호 시설 일람표.
- 보건복지부(1999). 여성복지 시설현황.
- 서대문구청(1995). 미혼모 보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서대문구청 내부자료.
- 서울시 부녀복지 연합회(1996). 한국 미혼모 복지의 현황과 발전방향.
- 성영혜(1997). 아동복지. 동문사.
- 애란원 내부자료(1996, 1997, 1999). 애란원 소식.
- 임재택(1996). 유아교육과정. 양서원.
- 윤미현(2000). 10대 미혼모의 임신 및 입양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영주(1998). 10대와 20대 미혼모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홀트 아동복지회 내부자료(1995). 아동인수, 아동양육 및 국내외 입양현황.
- Apfel, N. H., & Seitz, V.(1991). Four models of adolescent mother-grandmother relationships in back inner-city. *Family Relations*, 40, 421-429.
- Bachrach, C. A. (1986). Adoption plans, adopted children and adoptive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243-253.
- Deykin, E., Campbell, P. H. L., & Patrica, P. (1984). The post- adoption experience of surrendering paren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4, 271-280.
- Donnelly, B., & Voydanoff, P.(1991). Factors associated with releasing for adoption among adolescent mothers. *Family Relations*, 40, 404-410.
- Jorgensen, S. R. (1993). *adolescent pregnancy and parenting*. In T. P. Gullotta, G. R. Adams 7 R. Montemayor (Eds.), *adolescent sexuality* (pp. 103-140). newbury Park, CA: sage.
- Kallen, D. R., Griffiore, R. J., Popovich, S., & Powell, V.(1990). Adolescent mother and their mothers view adoption. *Family Relations*. 39, 311-316.
- Kalmuss, D., Namerow, P. B., & Bauer, U. (1992). Short-term consequences of parenting versus adoption among young unmarried women. *Jornal of Marrisge and The Family*. 54, 80-90.
- Levering, C. S(1983). Adolescent pregnancy programs collection; an introduction. *Child Hood Education, January/February*, 182-185.
- Leynes, C. E. (1980). Keep of adopt: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pregnant adolescents' plans for their babies.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11, 105-112.
- Mclaughlin, S. D., & Micklin, M. (1983). The timing of the first birth and changes in personal efficac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47-55.
- National Resarch Council(1987). *Declining earning of younMen; their relation to poverty, teen pregnancy and family formation*. Washington DC; Children's Defense Fund.
- Resnick, M. D. (1984). Studying adolescent mother's

- decision making about adoption and parenting. *Social Work*, 29, 5-10.
- Richardson, R. A., Barbour, N. B., & Bubenzer, D. L. (1991). Bittersweet connection: informal social networks as sources of support and interference for adolescent mother. *Family Relations*, 40, 430-434.
- Roosa, M. W.(1996), Adolescent pregnancy programs collection; an introduction, *Family Relations*. 40, 370-372.
- Rosen, R. H., Bensen, T., & Stack, J. M. (1982). Help or hindrance: Parental impact on pregnant teenager's resolution decision. *Family Relations*, 31, 271-280.
- Watson, K. (1986). Birth families: Living with the adoption- decision. *Public welfare*, 5-10.
- Wazak, C. (1990). *Public costs of teenage child bearing*. TEC NETWORKS. 27, 3.